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4년 10월 30일

CUOMO 주지사, 학교의 응급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하다

Andrew Cuomo 주지사는 오늘 응급 상황 발생 시 학생과 학교 관계자에게 잠재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약물에 대해 접근성을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새 법률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학교에게 처방전 없이 학생들에게 에피펜(epi-pens)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천식, 알러지 및/또는 당뇨병 진단을 받은 학생들에게 처방 치료를 직접 하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식적인 법률은 긴급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약물을 빨리 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벽을 없애줍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법을 발의해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 법은 생명을 구하고 피할 수 없는 비극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한 가지 새로운 법(S.7262-A/A.7791-A)은 학교들이 긴급 상황 발생 시 흔히 에피펜이라고 알려진 자동 주입 가능 에피네프린을 보유 및 처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를 받는 사람이 처방전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에피네프린은 생명을 위협하는 알러지 반응 시 꼭 필요한 약물입니다. 이 법은 학군들로 하여금 에피펜을 현장에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학생이 처방전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간호사 외 다른 관리들이 이 약물을 보유 및 처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 주입 가능 에피네프린의 긴급 사용은 에피네프린을 처방하는 교직원이 현장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 사용법에 관해 보건부가 승인한 적절한 교육을 이수했을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Kemp Hanno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민성 쇼크 발생 시 에피네프린의 제 때 처방은 생사를 가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은 이 법으로 인해 응급 상황 발생 시 학교 및 교직원들에게 처방전 없이 자동 주입이 가능한 에피네프린을 보유 및 처방하도록 승인함으로써 학교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알러지 반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Thomas Abinanti 주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항상 구비되어 있지만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특수약물과 장치를 필요하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더 많은 교직원들로 하여금 아이들에게 처방 기기로 도울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식적인 조치는 알러지, 천식, 당뇨병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에피펜, 흡입기 및 기타 처방약물과 장비들을 갖고 다니면서 학교에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은 아니지만 훈련을 받은 교직원들이 응급 상황 발생 시 처방 약물을 처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A.9334-B/ S.7758)라는 법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법은 천식 또는 기타 호흡기질환, 알러지 및/또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교나 학교 활동 시 필요한 약물을 갖고 다니면서 자체 처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에 따라서 의사의 동의서 및 학부모 서면 동의서를 가진 학생들은 간섭을 받거나 지체 없이 흡입기, 에피펜, 인슐린과 같은 중요 약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John Flanaga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우리 뉴욕주에 있는 학교에서 점차 부각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에 상식적인 처리 방법입니다. 이 법은 알러지와 다른 심각한 의료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건강과 관련된 결정을 제 때에 적합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 법은 관련자들에게 교육에 전념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매우 시급한 마음의 평화를 학부모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Catherine Nolan 주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부모로서 저는 우리 아이가 응급 진료 상황에 놓였는데 즉시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천식, 심한 알러지 또는 기타 심각한 건강 상의 문제가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이러한 공포는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잠재적으로 생명에 위협이 되는 증상이 있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약물을 갖고 다니도록 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학생이나 훈련된 교직원이 가급적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우려를 일부 불식시켜줄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항을 법으로 확정해주신 Cuomo 주지사에게 감사 드립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We Work for the People
Performance * Integrity * Pride

Korean